

『鶴山樵談』의 三唐詩人論과 李達詩의 盛唐風 考察 1)

金元(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博士過程)

zhenpiaoliang2002@yahoo.co.kr

차 례

- I. 머리말
- II. 許筠의 시관과 시화의 성격
- III. 『鶴山樵談』의 三唐詩人 위상과 시풍
- IV. 李達詩의 盛唐風—王維시 비교
- V. 맺는말
- 參考書目

I. 머리말

韓國詩話는 고려 후기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여 고려조 李仁老의 『破閑集』과 李奎報의 『白雲小說』을 위시하여 조선조에 들어서 본격적인 시화가 출현을 하게 된다. 이 시화자료는 한국고대문학의 시학사와 그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되며 그리고 한국시화에서 중국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비취보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시화에 서술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으로 중국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와 평가기준도 중국과는 다른 위치에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 이 논문은 제2단계 BK21 사업(2006학년도)에 의하여 지원받아 작성된 것임

한국시화의 서술은 우리의 문학관점인 것을 분명히 한다. 본고에서 許筠의 『鶴山樵談』을 근거로 하여 조선조 중기의 시 사조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인 즉 허균의 스승이며 조선중기에 당시를 본받은 三唐詩人(李達, 崔慶昌, 白光勛)의 리더인 李達의 시를 고찰하는 작업은 우리의 시학체계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한중문학의 교류를 규명한다는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許筠(1569-1618)은 字가 端甫, 号는 蛟山, 惺叟, 惺惺居士, 鶴山, 白月居士 등이며 그가 쓴 시화로는 『惺叟詩話』와 『鶴山樵談』(1593년)이 있다. 『惺叟詩話』는 종적인 시사적 관점에서 서술하였고, 『鶴山樵談』은 횡적으로 조선중기인 宣祖시대의 시를 중심으로 그 맥락과 연원관계를 學唐의 위치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鶴山樵談』은 시를 평가하는 면에서 『惺叟詩話』보다 더 가치가 있다. 허균은 어려서 문장은 柳成龍에게 배우고 시는 이달에게서 배웠다. 시풍을 계승하는 맥락으로 살펴본다면 唐詩대가인 朴淳과 鄭士龍에게서 이달이 수학하고 허균이 그 계승자가 되는 관계로 보면 허균의 시 의식은 당시에 근거를 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허균의 『鶴山樵談』 108개조에서 삼당시인과 관련된 評文 17개조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중에 조선 문단에서 탁월한 문인으로서 조선중기와 후기에 영향을 준 이달 시와 당시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허균의 시관과 시화의 성격

개혁적인 문인이며 유학자인 허균은 26세에 과거에 급제하고부터 대대로 문벌가문의 가풍에 맞게 여러 관직²⁾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그 사람됨이 경박하여 마침내 慶運宮凶穢事로 사형을 당하는 삶을 마친다. 그의 불우한 생애와는 달리 그의 문학은 조선조문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문학에서 시와 시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의 시관의 형성된 요인을 보면, 먼저 그의 가정환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부친

2) 藝文閣檢閱, 春秋記事官, 世子侍講院說書, 兵曹佐郎, 正郎, 黃海都事, 成均司藝, 遂安郡守, 三陟 府使, 公州牧使, 刑曹, 禮曹, 兵曹參議, 承文院副提調, 承旨, 刑曹判書, 右參議

许晔은 아들 허균에게 문장은 유성룡에게 배우게 하였고 시는 이달에게서 배우게 하였다.³⁾ 경전과 문집은 물론, 역사 특히 『东国通鉴』을 반드시 읽게 하였고 또한 엄격하게 교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许箴, 许筠, 许楚姬 등 당대의 문인들인 형제의 지도하에서 문물을 익히며 허균은 이렇게 자신의 천재적인 聪气를⁴⁾ 발휘하면서 전형적인 조선조 사대부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렇게 그는 유년기에 엄격한 유가적 학풍 속에서 문학에 대한 공부를 苏轼과 黄庭坚의 송대 사조를 배우는 전래의 학습절차를 따랐다. 이러한 기풍은 명대의 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唐시를 받들고 宋시를 배척하는 소위 ‘崇唐黜宋’이라는 조선중기의 새로운 사조로 변하게 되었고 때문에 문학평가기준도 재설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생활여건 하에서 허균은 문학에 있어서 존당파인 이달에게서 문학과 인품을 함께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시관도 시경의 온유둔후적인 诗教와 唐风에 기반을 두게 된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유가적 교육을 받은 허균은 그의 시관의 바탕도 시경의 诗정신을 중시하는데 다음 글에서 그의 诗道の 근본이 시경에서 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찍이 말하기를 시도는 삼백편에서 크게 갖추어졌다고 한 바, 그 빼어나고 둔후함은 비평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풍이 가장 성행하고 아송은 이치에 치중하여 정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

尝谓诗道大备於三百篇，而其优游敦厚足以感发惩创者。国风为最盛，雅颂则涉涉於理路，去性情为稍远矣。⁵⁾

허균은 시경에서 雅颂보다 国风을 더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국풍이 정감을 위주로 표현된 시가이기 때문이다. 감정의 표현이 이성의 작용 보다 먼저하고 그것이 시로 나타나는 과정을 중시한 것이다. 정감위주의 시로 성당시를 본받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시단이 송대 시풍을 따르던 시기에 스승 이달의 송시풍으로부터 결정적인 탈피와 송시의 정감이 부족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하여 명대 전후칠자가 성당시를 본받은 사조를 영향 받게 된다. 이 달과 마찬가지로 허균

3) 『惺叟詩話』: 「仲兄自遺還，始教以古文，文從西崖相學，詩從蓀谷學，方知文章之經。」

4) 『宣祖大王實錄』 34년 11월 18일: 「許筠非徒能詩，性且聰敏，多識典故及中朝事。」

5) 『惺所覆瓿藁』 卷5 題唐絕選刪序

또한 「文必秦汉, 詩必盛唐」의 옛것을 따르는 운동의 전철자를 계승한 후철자의 하나인 王世貞 (1526-1590) 을 깊이 존중하고 그 문학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허균이 왕세정을 본받은 점은 그의 續夢詩 40수를 통해 꿈에 만난 何景明과 徐禎卿, 그리고 王世貞을 시제로 하여 창작한 것을 보면 확인하게 된다.⁶⁾ 허균은 후철자 중에서 이반룡과 왕세정을 으뜸으로 삼았다. 왕세정의 문학을 보면 그의 재주가 출중하고 文風은 秦汉을 본받고⁷⁾ 그의 시는 전철자의 성당시를 본받았다. 왕세정은 자신의 문장을 스스로 평하기를 “이에 우리는 삼보가 있으니, 초보는 웅혼하고 유창하며, 조보는 기발하고 초탈하고 덕보는 정밀하고 온전하니 모두 내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⁸⁾ 라고 하여 그가 지향하는 풍격은 웅대하고 막힘이 없고 또한 기발하며 엄격하고 바른 것을 지향하였다. 또 덧붙여 스스로를 평하기를 “나는 시문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가락을 짓지도 않는다. 무릇 뜻이 붓보다 앞서 있으니 붓이 뜻을 따라 나아간다.”⁹⁾ 라고 하여 내면의 정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왕세정은 시를 짓는데 있어서 정감을 으뜸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두보를 위시한 전형적인 당시의 풍격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런 상황아래 그 당시 조선 문단에서는 왕세정의 위상이 높았다는 증거로서 조선 사신들이 燕京에 가면 왕세정의 문집을 수집하는데 열중하였다거나¹¹⁾ 조선에서 직접 문집을 간행함은 물론 光海君이 冬至兼陳奏使 閔馨男과 副使 허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왕세정의 문집을 거론하는 관심을 보인 것에서 확인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 『李朝光海君日記』(卷 94 光海君七年潤八月己酉)의 한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이 말하기를 왕세정이 저술한 것은 무슨 책인가? 허균이 말하기를 엄산집입니다.

6) 허경진 『許筠詩 研究』 p.232-233(평민사 1984)

7) 『四庫總目』: 「自古文集之富, 未有過於世貞者. 其摹秦仿漢, 與七子門徑相同.」

8) 自是吾黨有三甫: 肖甫之雄爽流暢, 助甫之奇秀超詣, 德甫之精嚴穩稱, 皆吾所不及也.(藝苑卮言 卷7)

9) 吾於詩文不作專家, 亦不雜調. 夫意在筆先, 筆隨意到.(上同)

10) 『秋圃擷餘』: 「五言詩刻意老杜, 深情老句, 自旗鼓中原.」

11) 金學主, 吳金成 編 『明清人文集目錄』에 의하면 明清刊刻의 왕세정저작은 『州山人四部稿』, 『弇州山人續稿』, 『弇山堂別集』, 『讀書後』 등 20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다.(孫衛國 「王世貞及其著作對朝鮮的影響」 『中國古代, 近代文學研究』 2006年第4期)

왕이 말하기를 이 문집이 중국에서 유행하는가? 민형남이 말하기를 왕세정은 문장대가입니다. 집집마다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왕세정 문집을 고쳐 간행할 수 있는가?

王曰：王世貞所述，何冊耶？許筠曰：弇山集也。王曰：此集中朝盛行耶？閔馨男曰：王世貞文章大家也，家家皆有之矣。王曰：王世貞文集，可以刊改耶？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皇明大家王弇州文抄』 등을 직접 간행하기도 하고¹²⁾ 이와 더불어 허균도 존당문인 왕세정의 문집을 접하면서 허균자신의 문학 뿌리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허균은 왕세정의 문집에 심취되고 또 그를 본받아 「續夢詩」 40수와 「續靜姬詩」를 짓고, 그리고 왕세정의 문집 『四部稿』의 명칭을 빌려서 허균자신의 문집을 『四部覆瓿藁』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을 왕세정의 忠臣이라고까지¹³⁾ 표현할 만큼 동일화된 문학의식을 보인다. 삼당시인 이달에게서 배우고 성당시의 복고파인 왕세정에 동화된 허균의 작시의식에서 저술된 『鶴山樵談』은 1972년까지 발견되지 못하다가 趙潤濟의 소장본 『稗林』에서 처음 등장된다.¹⁴⁾ 비록 학계에서 늦게 거론되었지만 그 당시의 시단의 사조와 시평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가 된다.

2. 『鶴山樵談』의 시론적 성격

1593년에 저술한 이 시화는 조선중기의 시단의 사조를 대변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고려 중엽부터 주된 사조인 苏轼과 黃庭堅이 중심이 되는 송시풍조에서 李胄-金淨-鄭士龍-李達로¹⁵⁾ 계승된 학당파의 조류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 시화가 탄생되었

12) 孫衛國 「王世貞及其著作對朝鮮的影響」：「朝鮮不僅搜羅明清刊刻的王世貞書籍，還特別刊刻一種皇明大家f王弇州文抄一卷一冊，還將茅坤與王世貞的文章合刊爲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抄一冊。」

13) 『惺所覆瓿藁』卷4世說刪補注解序：「亦不失爲忠臣也，使元美知之，則必將鼓掌於冥冥中，以爲愉快焉。」

14) 허경진 『許筠의 詩話』 p.28(民音社 1982)

15) 앞의 주의 자료 p. 244에 學唐의 계보를 정리하기를, 鄭士龍과 함께 盧守愼, 黃廷或을 놓

다. 허균은 이달의 제자로서 이 시화는 그 내용이 당 시론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류를 연구하기에 자료적절하다 볼 수 있다. 이 시화의 판본은 조운제 소장의 패림본이 신뢰도가 높으며 규격은 10行 20字 41章 필사본이다. 내용상으로는 본문 말미에 작은 글씨의 注가 부기되어 있고 그리고 按이란 부기어가 있다. 모두 108개조로 구성되고, 그 중에 시를 평가하는 내용은 99개조로, 시 6개조, 삼당시인이 17개조, 許筠이 25개조, 許蘭雪軒이 6개조, 중국부분 8개조, 기타 그 당시의 문인의 부분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저술 시기는 그의 시화 後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어려서 아버지의 교훈을 잃어서 여러 형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독촉하고 꾸짖지 않았다. 그래서 힘줄이 게으르고 살이 늘어져서 글 읽기를 힘쓰지 않았다. 좀 자라서 과거 급제할 사람을 보면 즐겨 본받았으나 글 다듬고 꾸미는 것을 대장부의 할 일이 아니라 했다. 이제 난세를 만나니 세상 생각이 이미 재가 되었고 십년을 독서하려 하였으나 아아 또한 늦었다. 학산초담 한 부를 지으니 지금 천자가 즉위한 지 21년, 계사년 10월 3일 교산자가 쓰다.

仆少失先子之教, 诸兄爱恤, 不加督责, 以故筋懒肉缓, 不务读书. 稍长见人占科举者, 喜而效之, 雕虫篆刻非丈夫之所为. 今遭乱世, 世念已灰, 欲十年读书而嗟亦晚矣. 作鹤山樵谈一部. 今天子即位之二十一载, 岁在黑蛇阳月燃灯後三日, 蛟山子书.

라고 하여 장시간 독서삼매에 들어 학식과 주관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고 저술 시기는 宣祖 21년 즉 1593년 음력 10월로 본다. 이같이 『鶴山樵談』¹⁶⁾은 당 시론에 의거한 조선의 한 시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존당적 시론을 주창하고 있음이 중요한 관점이다. 그간의 시풍이 송시에 치우쳐져 있어 시의 진면을 상실하여 온 점을 시화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시학은 소식과 황정견을 위주로 해서 비록 경험같은 큰 선비라해도 그 구렁에

고, 李達와 함께 朴淳, 다른 三唐시인 2인과 許筠을 그리고 李達의 계승자로 許筠, 許楚嬭, 權鞞을 놓고 있다.

16) 학산초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3조 李胄와 杜牧, 4조 三唐시인과 賈島, 孟郊, 5조 許筠과 李白, 15조 許楚嬭와 李白, 李賀, 27조 洪慶臣과 李白, 28조 許筠과 杜牧, 43조 盧守愼과 당시, 59조 鄭鎔과 성당, 84조 李誠胤과 溫庭筠, 93조 許楚嬭와 劉禹錫, 100조 南孝溫

빠졌고 그 밖에 세상에 이름을 냈던 자도 그 찌꺼기를 먹으며 씹고 못된 말을 만들곤 했다.성당풍은 사라져서 못 듣게 되었다.

本朝詩學以蘇黃為主。 景濂大儒，亦墮其窠臼，其餘鳴于世者，率啜其糟粕，以造腐牌坊語。 .. 盛唐之音泯泯無聞。

송시의 위세가 조선중기까지 덮고 있어서 경물의 묘사와 감정 토로가 융합되는(情景交融)의 시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형식과 이성에 기울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시풍에 매여 있다가 조선 중기에 와서 성당의 시풍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명대 전후철자의 출현과 맥락을 같이하는 풍조라고 할 것이다. 이런 사조의 출현은 李胄에게서 시작된 것임¹⁷⁾ 다음 제3조의 이주시를 논한 부분에서 기록 하였다.

망헌 이주의 시는 침착하면서 노련하여 둘째형님이 대력, 정원 시대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식과 두목을 배운 후로 대체로 순박하지 못하였다.

忘軒李胄之詩，沈著老倡，仲氏以為近於大曆貞元，然自是蘇杜中來，大体不純。

李胄가 조선중기의 시단을 당풍으로 유도하고 그 시가 중당 때의 大历才자의 시를 추종한 것을 알 수 있다.¹⁸⁾ 이리하여 삼당시인의 출현과 동시에 조선중기 이후에는 시단이 당시의 사조를 따르게 된 그 역할을 허균의 『鶴山樵談』과 『惺叟詩話』 시화가 담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화에서 특기할 점은 그 당시의 시론에 머물지 않고 명대 시인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균의 박학다식하고 예리한 관찰력이 출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시화 제68조의 한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나라 사람으로 문장이 이름난 사람이 열 명인데, 공동 (이헌길), 양명 (왕백안), 형주 (당응덕), 제주 (왕신중), 심양 (동분), 녹문 (모곤), 창명 (이반룡), 봉주 (왕세정), 남명 (왕도곤)이다. 이공동은 서한만을 배우고, 왕과 이는 문장이 까다로워 선진을 이으려 하고 남명은 화려하고 건실하며, 동분과 모곤은 평이하고 숙달하며 왕신중은 문장이

17) 『惺叟詩話』에서 「李忘軒胄詩最沈著，有盛唐風格。」이라 하고 『蓀谷集』序에서 「弘正間忘軒李胄之始學唐詩。」라고 기술.

18) 시화 제56조에 李胄의 「贈別李浪翁」시 등 2수를 재록함.

떠들고 허황되어 명나라 사람이 모두 싫어하여 썩고 속되다고 하니 나의 견해도 대략 같다. 백안은 글에 전념하지 않고 학문에 분발하여 잡다함을 면치 못하였다. 형주는 본보기가 될 만하여 모두 대가라 하였다. 왕원미 무리는 명인의 문장을 서한에 비교하고 이현길은 태사공에 비교하고 우리는 자운에 비교하고 자신은 사마상여에 기탁하니 그 과장이 너무 심하였다.

明人以文鳴者十大家, 李崆峒獻吉, 王陽明伯安, 唐荊州應德, 王祭酒允亨, 王按察慎中, 董澗陽玠, 茅鹿門坤, 李滄溟攀龍, 王鳳州世貞, 王南溟道昆. 李崆峒專學西漢, 王李則鈎章棘句, 欲軼先秦, 南溟華健, 董茅則平熟, 王慎中則富贍, 明人皆厭之, 以為腐俗, 余所見略同. 伯安不專攻文而以學發之, 故未免駁雜. 荊州則典實, 然皆可大家. 王元美輩以明人文章比西漢, 李獻吉比太史公, 于鱗則比子云, 自托於相如, 其自夸太甚.

여기서 이들은 모두 전후칠자와 그 유파로서 먼저 복고파인 李夢陽(1472-1529)은 弘正七才子 곧 전칠자의 영수인데 이들은 복고주의자로서 文은 秦漢을 본받고 시는 盛唐을 숭상할 것을¹⁹⁾ 주장하여 永樂이후의 台閣體를 시정하려 하였다. 위에서 이현길은 전칠자이며 李攀龍(1514-1570), 王世貞(1526-1590)은 후칠자이고 王慎中(1509-1559)은 嘉靖八才子, 茅坤(1512-1601)은 茅歸壓胄子²⁰⁾ 그리고 王道昆은 後五子로서 모두 각 유파의 거두역할을 하며 동일한 사조를 주창한 것이다. 그리고 시화 제 69조에 명대 문인을 열거하여 그 장점을 거론하고 있다.

명나라 사람으로 시로 이름난 사람은 대복과, 공동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이백과 두보에 비교하였다. 한 때에 능하다고 한 사람은 화친 변공, 박사, 태백, 검토이다. 하와이의 장편칠률이 모두 좋고 이우린과 왕원미도 대가로 칭하고 오국륜, 서중행, 장가운, 왕세무, 이세망, 사진, 여민표, 장구일 등은 모두 앞을 다투었다.

明人以詩鳴者, 何大復景明, 李崆峒夢陽, 人比之李杜. 一時稱能者, 邊華泉貢, 徐博士禎卿, 孫太白一元, 王檢討九思. 何李之長篇七律俱善, 近古李于鱗王元美亦稱二大家, 而吳

19) 『明史』文苑傳: 「夢陽才思雄鷲, 卓然以復古自命. 弘治宰相李東陽主文柄, 天下翕然宗之, 夢陽獨譏其委弱, 倡言文必秦漢, 詩必盛唐, 非是者不道。」

20) 李曰剛 『中國詩歌流變史』下p.385(臺灣 文津出版社)

国伦, 徐中行, 张佳胤, 王世懋, 李世芳, 谢榛, 黎民表, 张九一等皆并驱争先.

여기서는 전칠자의 영수인 何景明(1483-1521)과 李梦阳을 이백과 두보에 견줄만하고 전칠자인 边贡(1476-1532), 徐祯卿(1479-1511), 王九思를 거명한 후에 이어서 후칠자인 이반룡, 왕세정, 谢榛(1495-1575), 徐中行(1517-1578), 吴国伦 등은 전칠자의 존당사조를 계승하고, 후오자인 张佳胤과 张九一, 续五子인²¹⁾ 黎民表和 왕세정의 동생인 王世懋도 같은 문풍을 주창하였음을 보여준다. 허균이 거명한 명대 문인은 모두 조선 중기의 시단을 풍미하던 당풍을 내세운 점에서 문학영향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 시화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허균이 조선문인과 중국문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어서 시화를 저술한 의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적은 다른 시화에서 찾기 어려운 냉정한 자기 비판적이며 객관적인 논평의식이라 하겠다. 다음 『학산초담』 제71조를 보면 나타나고 있다.

대개 명인은 학문을 쌓으며 고생하여 문단에 오른 자가 기름을 태우며 날 밝기까지 하고 반딧불과 창문을 지키며 힘쓰는 자는 눈을 비치며 해를 거듭한 후에 그리하여 시문을 지으면 모두 온후하고 기세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장을 모아서 과거급제를 차지하고는 책을 버리길 원수같이 하니 동방에서 예부터 문헌이라 일컬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처럼 사라져 버렸는가? 어찌하여 뒷사람이 권하여 이루지 못하는가? 또 세대가 내려오면서 말세가 되고 인제가 옛날을 따르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다 요순이 될 수 있으니, 작은 재능을 어찌 스스로 정하여 힘을 다하지 않는가? 학문을 쌓고 공을 들이면 옛사람도 어렵지 않은데 칠자나 신, 허의 무리 정도에 이르지 못할 건가? 잠시 여기에 써서 스스로 경계한다.

盖明人绩学攻苦, 登文陛者, 燃膏达晓, 守萤窗者, 映雪穷年, 故发为诗文, 皆浑厚有气. 我国则组织絺章以占科第及登科第, 则弃书册若仇讎, 东方古称文献, 今何泯泯如此邪? 岂上之人不能奖率而成就之邪? 抑亦世降俗末而人才不逮古邪? 然人可皆为尧舜者, 一小技岂可自画而不尽力邪? 绩学用功则古人不难, 到沈七子与申许辈乎? 姑书此以自警焉.

21) 상동 p.342

명나라 사람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서 文에 통달하는 경지에 도달하는데 조선의 문인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과거급제라는 목표달성만을 추구하고 학문을 가까이 하지 않는 단발적인 의식과 둘째 학맥상 선후의 인재양성의 제도 미비 된 점 그리고 셋째 끊임없이 공을 들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 등에서 명인에게 뒤지는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허균의 시와 시론이 당시를 본받고 ‘才情²²⁾에서 정감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鶴山樵談』은 후세 시론에 중요한 골격이 되고 영정조대에 申緯와 같은 문인의²³⁾ 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Ⅲ. 『鶴山樵談』의 三唐詩人 위상과 시풍

본 장에서는 삼당시인 중에서 중심이 되는 허균의 스승 이달과 당시를 연관하여 살핀다. 허균이 거론한 삼당시인은 조선중기의 시단의 조류를 송시 중심에서 당시로 전환시킨 면에 초점을 둔다. 시단에서의 삼당시인의 초기역할의 중요성을 다음 시화 제3조에서 서술하고 있다.

용경·만력년 간에 최가운, 백창경, 이익지 등이 당시의 개원을 열어서 정화에 힘써 옛사람에 닮으려 했으나, 골격이 불완전하고, 곱고 아름다운 점이 매우 심하여 허훈과 이상은 사이에 두어도 천한 사람으로 느끼거늘 문득 그들로 이백과 왕유의 지위를 뺏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로 인해 학자는 풍이 있음을 알게 되니 삼인의 처음 업적은 가히 덮어 둘 수가 없다.

隆庆万历年间, 崔嘉运·白彰卿·李益之辈, 始攻开元之学, 黜勉精华, 欲逮古人, 然骨格不完, 绮丽太甚, 置诸许李间, 便觉伧夫, 倾目乃欲使之夺李白摩诘之位邪, 虽然由是, 学者知有唐风, 则三人之初亦不可掩矣.

22) 金萬重 『西浦漫筆』 下: 「筠四部稿, 士夫間頗有傳之者, 體格不甚高, 而才情有過人處, 如宮詞, 絕句, 竹西樓等諸篇, 洲岳諸公不能爲也。」

23) 柳晟俊 『韓國漢詩와 唐詩의 比較』 p.372-473 참고(푸른사상 2002)

삼당시인의 출현은 기존의 시풍의 대변화를 예고한 것이며 그 의미 또한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 시화에서 그 위상을 논하는 부분을 보면 먼저 崔庆昌의 경우 시화 제6조에서 그의 시를 왕세정이 칭찬한 것을 기술하기를 “이 시는 중원에 전파되어 왕봉주 선생이 매우 칭찬하였다.(此诗传播中原, 王凤洲先生甚加推赏.)”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题杨忠壮公照之墓」를 평가하기를 “이 시는 당나라 시인의 높은 경지에 뒤떨어지지 않으니 중원에서 칭찬받음이 마땅하다.(此诗不减唐人高处, 宜乎见赏於中原也.)”라고 하여 시의 평가기준을 당시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최경창이 许筠의 시를 평가하기를 “봄의 시는 秋字로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 구절은 전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孤竹见之曰; 春诗秋字最难, 此句夔越前人也)”라고 하여 최경창이 시를 보는 안목이 예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白光勛의 경우에 제7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백광훈의 자는 창경인데 서법이 왕희지와 왕헌에 가깝고 처음 관직에 나아가서 예빈시 참봉에 임명되었는데 일찍이 홍경사를 지나다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가을풀이 옛 나라의 절에 나고 남은 비에는 공부하는 선비의 글이 있네. 천년 유수 같은 세월 지는 해에 돌아가는 구름을 본다.」 임오년 서울 집에서 죽었다. 난설 누님이 감우시에 이르기를: 「근래에 최경창과 백광훈 무리가 시를 닦는데 성당을 따른다. 적막한 대아의 소리가 이들에게서 다시 울린다.」

白光勛字彰卿, 字法逼二王, 筮仕命参奉礼宾, 尝过弘庆寺题诗曰: 秋草前朝寺, 残碑学士文. 千年有流水, 落日见归云. 壬午病卒京邸. 兰雪姊氏感遇诗有曰: 近者崔白辈, 攻诗轨盛唐. 寥寥大雅音, 得此复铿锵

라고 하여 书法이 王羲之와 王献에 교류하여 탁월한 것과 许兰雪轩의 「感遇诗」를 인용하여 최경과 백광훈이 성당시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이전에는 송시를 따르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그 흐름으로부터 완전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조선문단이 苏洵 삼부자와 黄庭坚, 陈师道 등 江西诗派를 추종하는 상황에서 삼당시인의 출현으로 문단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최경창과 백광훈, 许筠은 요절하였으므로 이달의 위치가 중시되었지만 질투와 모함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삼당시인의 위상이 문단에서 높아지면서 그 풍격도 중시되었다. 이들의 풍격이 형성된 배경

을 다음 朴淳의 《思庵先生文集》卷五 문집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옹이 그의 문장을 논해 말하기를 청초하고 담백하며 시 또한 빼어나서 당을 따르니 후에 최경창·백광훈·이달들이 그 원류가 공에서 창시된 바이다.

玄翁論其文章曰，清邵淡洁，詩尤警發，力追李唐，後來崔慶昌白光勛李達之流，其源自公所倡始。

라고 하여 삼당시인의 시풍원류를 서술하였다. 이들은 선조이후에 문단의 변화를 주도하였는데 이들의 풍격에 대해서 이 시화 제4조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은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최경창, 백광훈, 이달 세 사람의 시는 모두 성당시를 본받았다. 최의 시는 맑고 의기가 있고, 백의 시는 속되지 않고 아담한 정취가 있더 모두 귀중하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사실적 묘사가 좀 온후하지 못하다. 이달은 시가 화려하여서 앞의 두 사람에 비해서 원대하지만 모두 맹교와 가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최와 백은 일찍 죽고 이달은 만년에 문장이 크게 진보되어 스스로 하나의 파를 이루었고 시가 아름답고 고우며 소박해졌다. 둘째형이 극히 칭찬하여 이르기를; 「유장경과 견줄 만하니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崔白李三人詩皆法正音。崔之清勁，白之枯淡，皆可貴重。然氣力不逮，稍失事厚。李則富艷，比二氏家數頗大，皆不出郊島之藩籬。崔白早世，李晚年文章大進，自成一家，斂綺麗，歸於平實。仲氏亟稱曰：可與隨州比肩，亦不多讓。

여기서 正音이란 곧 성당시를 말하고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의 장단점을 평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시의 위상과 그 시의 흐름이 中唐대 刘长卿와 견줄만하다고 한 것은 유장경이 성당의 王维派에²⁴⁾ 속한다고 보면 근거 있는 평가라고 하겠다. 허균은 삼당 중에서도 특히 이달의 시 가치에 대해서 <寒食詩>, 「贈林龟城詩」, 「魯山墓詩」 등을 인용하면서 “잇구의 대구가 자연스럽고 침착하면서 기세가 잦아들어 있다. (句對偶天成，沈著頓挫)”라고 하였다. 허균은 이렇게 이달의 시를 최상으로 보았고 이런 시적

24) 唐汝詢『唐詩解』上 527쪽(河北大學出版社 2001)

가치가 허균에 계승되어 이 시화에서 삼당시인을 비교적 비중 있게 거론하게 된 것이다.

IV. 李達詩의 盛唐風— 王維詩 비교

이달은 양반의 아들이었지만 미천한 기첩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글 솜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점 때문에 漢吏學官이 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 일정한 곳에 몸을 붙이지 않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그의 성품이 방탕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않았으며 세속의 예절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람들로 부터 거슬림을 받는다. 하지만 그와 마음을 통하여 따뜻하게 맞아준 곳은 허균의 집안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²⁵⁾ 이달의 시문학의 계통과 당시로의 풍격변화과정에 대해서 다음 허균의 『菘谷山人傳』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달은 소동파를 본받아 한번 붓을 쥐면 문득 수백 편을 썼으니 그 모두가 화려하고 풍부하고 아름다워 가히 읊을 만 하였다. 하루는 사암 박순이 이달에게 일러 말하기를 “시의 道는 마땅히 魏와 唐을 正道로 삼고, 소동파가 비록 호방하다 해도 이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고는 책장에서 이태백의 악부와 왕유와 맹호연의 근체시를 골라 보여 주니, 이달은 놀라서 바른법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지난날에 배운 학문을 모두 버리고 예전에 은거하던 집으로 돌아 와서 《文選》의, 이태백 및 성당의 12 문인을 본받고 유장경과 위응물, 그리고 《唐音》을 접하여 엮드려 외우고 밤낮으로 열심히 하여 무릎 꿇고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5년이었다. ……그 시의 청신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움이 뛰어난 것은 왕유·맹호연·고적·잠삼에 견줄만하고 밑으로는 유장경·전기의 韻을 잃지 않았으니, 신라·고려 이후 당시를 하는 사람으로 누구라도 이달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25) 허경진 엮음 『許筠의 詩話』 민음사 1982 p. 20

达方法苏长公得其随，一操笔辄写数百篇，皆穠瞻可咏，一日思庵相谓运曰：“诗道当以魏唐为正，子瞻虽豪放，已落第二义也。”遂抽架上太白乐府歌吟·王孟近体以示之，达矍然知正法之在是，遂尽捐故学，归旧所隐菽谷之庄，取文选太白及盛唐十二家，暨伯谦唐音，伏而诵之，夜以继昼，膝不离坐席凡五年，……其清新雅丽，高者出入王孟高岑，而下不失刘钱之韵，自罗丽以下，为唐诗者，皆莫及焉。（『菽谷集』）

여기서 이달의 스승인 朴淳을 중시하게 되고 당시로 전환한 후에 이달의 시는 성당 시와 중당시의 낭만은일적인 사조를 본받고 崔致远 이후 가장 당시에 근접한 시인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러면 삼당시인의 중심인 5년간 두문불출하고 당시에 몰두해서 터득한 이달의 시를 성당의 왕유시와 비교하여 이달시의 특성을 보고자 한다. 이달시를 성당시와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 허균의 『菽谷集』 旧序의 한 단락을 보면 드러나 있다.

그의 시의 본래의 근원으로 받든 것은 왕유와 유장경에 문학세계를 배워 흥취가 은일하고 아름다우며 담백하다. 그 미려함은 미인 남위와 같이 고운 옷에 밝은 화장을 한 듯하며, 그 온화함은 봄별이 백화를 덮은 듯하고, 그 청백하기는 서리가 흘러 큰 계곡을 씻는 듯하며, 그 밝게 울리는 음은 하늘의 생황(악기)을 타는 학이 오색구름에 드러난 듯하여 안개가 아름답고 바람이 씻어 가는 듯, 퍼면 구슬에 앉아 있는 듯하며, 울려 퍼지면 금슬소리가 슬피 나며 구슬이 울리는 듯 하며, 눌러 놓으면 준마가 앉고 용이 숨는 듯하며 서서히 나아가면 평평한 파도가 도도히 천리에 뻗으며 태산의 구름이 돌에 닿아 흰옷과 푸른 개 모양이 되나니 이런 변화무쌍한 기교는 개원·천보·대력 등 성당시대에 갖다 놓아도 왕유·잠삼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는다.

其诗本源供奉，而出入乎右丞随州，气温趣逸，芒丽语澹。其艳也若南威西子，祛服而明妆，其和也若春阳之被百卉，其清也若霜流之洗巨壑，其响亮也若九霄笙鹤，彷彿乎五云之表，引之霞绮风淪，铺之璧坐玃驰。鏗而厉之，则瑟瑟而球戛，抑而按之，则骥顿而龙蛰，徐行其所无事，则平波滔滔然千里朝宗，而泰山之云触石，为白衣苍狗，置在开天大历间，瑕不厕王岑之列。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달시를 고찰할만한 몇 가지 점을 요약할 수 있다. 즉 왕유

시와 비교해 볼 때 ‘气温趣逸’과 ‘其和也’구에서 이달시의 순수하고 담백한 면을 찾을 수 있고 ‘其艳(염)也’구와 ‘引之霞绮风’구에서 우아한 면을 보게 되며, ‘其清也若’구에서는 청신 초탈한 일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其响亮也若’구에서 시가 갖는 조화로운 색채를 보게 되며 이렇게 이달의 시 369수에서 왕유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게 된다.

성당에서도 왕유와 孟浩然에 대한 존중은 李·杜에 못지않아서 郭绍虞는 《沧浪诗话校释》(p.37)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창랑의 흥취설은 마침 왕사정의 神韵의 뜻과 같은데 어째서 창랑이 이백과 두보를 표본으로 들고 왕유와 맹호연을 으뜸 하지 않았는가? 이 점은 모순이 있는 것과 같다. 실은 이것이 창랑의 시를 논하는 요지이다.

沧浪兴趣之说, 正同於王士禛所谓神韵之义, 何以沧浪又标举李杜, 而不宗主王孟呢? 此点似有矛盾, 实则也是沧浪论诗宗旨.

성당시는 조선 중기의 정통적인 맥으로 정착이 되면서 조선초기의 소식· 황정건의 송시풍이 조선중엽의 사회혼란과 함께 퇴조하고 당시를 다시 부흥시키는 시점에서 이달의 공헌이 컸다. 위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시와 唐의 왕유시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본다.

1. 淳朴한 田园味

은화한 전원미는 순박한 것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왕유 시의 순수하고 담백한 맛이 전원산수시에 묘사되어 있다. 시의 禪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왕유시를 이달시와 연관시키면서 이달시가 지닌 전원적 소박함과 道禪의이고 고아함, 그리고 탈속의 관계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왕유시를 먼저 보도록 한다.

아침 닭은 이웃 동네에 울고
모두들 움직여 일에 힘쓰네.
농부는 밭에 나가고

부인은 일어나 비단 짜네.
晨鸡鸣邻里, 群动从行务.
农夫行饷田, 闺妇起缝素.
〈丁寓田家有贈诗〉卷3

위의 왕유의 시는 전원의 한가함과 농촌의 소박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시 〈題画〉《荪谷集》卷1를 보면 전원생활의 깊은 맛을 표현하고 있다.

두 부부 서로 기뻐하며
봄이 오면 밭갈이 일삼으니
높은 수레 말 탄 이들이여
뉘 전원의 즐거움 알리오.
翁妇相欣欣, 春来事耕作.
高车驷马人, 谁识田家乐.

두 시에서 본 것과 같이 왕유와 이달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전원시의 유사성을 볼 수 있다. 이달의《荪谷集》卷3 에 있는 〈祭冢谣〉과 왕유시를 다시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흰 개가 앞서 가고 누런 개가 따르고
들과 밭의 풀 사이에 무덤이 닿아 있네.
늙은이 제사 끝내고 밭고랑 따라
저물녘에 술 취해 아이에 부추겨 돌아오네.
白犬前行黄犬随, 野田草际冢累累.
老翁祭罗田间道, 日暮醉归扶小儿.

이 시에 그려진 것과 같이 외딴 마을의 먼 정경을 소탈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景中有情의 전원미를 풍기고 있다. 그리고 왕유 시에서도 마음과 경치가 서로 융화된 산수전원의 순박하고 담백한 맛이 알맞게 표현되어 있는 시로 《王右丞

集箋注》卷7 <归辋川作> 속에서 확인이 된다.

계곡 입구에 종이 울리니
고기 잡고 나무하는 일이 뜸하네.
아득히 먼 산에 날 저무는데
홀로 흰 구름 향하여 돌아오네.
마름 풀 약하여 단단키 어려운데
버들 꽃은 가벼이 휘날리네.
동쪽 언덕에 봄풀 빛나는데
슬프게 사립문을 닫도다.
谷口疏钟动, 渔樵稍欲稀.
悠然远山暮, 独向白云归.
菱蔓弱难定, 杨花轻易飞.
东皋春草色, 惆怅掩柴扉.

제1연은 농어촌의 정경을 묘사하고 제2연은 주변 환경이 자연의 경치를 더하며, 제3연은 자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제4연은 속세를 떠난 고독함을 각각 묘사하고 있다. 왕유와 이달의 시에서의 전원미는 농촌의 초목과 경치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 화자인 왕유가 회화적인 예술기법을 시에 접목시킨 점에서 이달보다 시를 묘사하는데 있어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본다.

2. 诗教的인 高雅美

공자의 诗教 즉 시가 고상하고 절도에 맞는 풍격에 있어서 고아미가 갖는 의미는 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점에 대하여 청대 潘彦辅는 그의 시화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릇 ‘雅’라는 것은 말의 잘 다듬는 것만은 아니다. 시를 짓는 연유가 반드시 권력과 이익을 벗어난 후에야 雅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의 화사함과 미려함을 다투는 시는 모두 권력과 이익 쫓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말이 우아하더라도 마음이 우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우아하지 않으니 말 또한 그것을 덮을 수 없는 것이다.

夫所謂雅者，非第詞之雅馴而已。其作此詩之由，必脫棄勢利。而後謂之雅也。今種種斗靡
聘妍之詩，皆趨勢弋利之心小流露也。詞縱而心不雅矣。心不雅則詞亦不能掩矣。《養一齋
詩話》

라고 하여 시의 우아함이 심적인 자세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유
와 밀접하게 같은 점이다. 이달의 『손곡집』 권2 <江行>을 먼저 살펴도록 한다.

길이 강을 감돌아 십리에 뻗었고
떨어진 꽃은 말발굽에 파고들어 향기롭네.
호수와 산에 할 일없이 왕래한다 말하지 마오.
새로운 시를 지어 비단주머니에 가득 채우리라.
路繞江干十里長，落花穿破馬蹄香。
湖山莫道空來往，贏得新詩滿錦囊。

여기에서 자연물인 路·落花·湖山 등을 의인화하여 흥의 용법으로 시의 품위를 높
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손곡집』 (卷4) <道中感懷>을 더 보면

용천 샘물은 구슬프게 울며 흐르고
시월 서풍은 귀밑 머리를 스치네.
누런 단풍은 가을 산에 가득한데 절문이 닫혀 있고
흰 모래섬에 놓여있는 작은 다리는 위태롭다.
외로운 돛배 지나가니 산봉우리 가득하고
말이 지날 때 온갖 풀이 시드네.
쓸쓸한 옛집에서 헛되이 꿈에 드는데
어지러운 등나무와 성근 대죽은 초옥에 서 있네.
龍泉鳴吼匣中悲，十月西風兩鬢絲。
黃葉滿山秋寺廢，白沙連渚小橋危。
孤帆過後千峰多，匹馬行時百草衰。
牢落故居空入夢，亂藤疏竹有茅茨。

제1·2구의 '龙泉'과'西风'을 의인화하여 인간과 동시적 감정을 표현하고 제3·4구는 황백색의 조화가 가을 산의 경치를 미화하고 흥하고 망함을 양면적 의미를 예술 감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제5·6구는 '孤帆'과 '千峰' '匹马'와 '百草'가 각각 연계되어 경치를 드러나게 묘사하는 기법을 써서 시 전체의 회화적인 면이 풍성하면서 단아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은 왕유의 《王右丞集笺注》卷七의 <山居秋暝> 제1~4구가 자연경물의 탈속적인 고결미를 보여주는 예와 연관된다 할 수 있다. 시를 제시하여 본다.

빈산에 비가 갓 온 후,
날씨가 어느새 가을이구나.
밝은 달 숲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은 돌 위로 흐른다.
대숲이 부스럭 빨래하고 가는 여인,
연꽃 출렁이니 고깃배 지나도다.
어느새 봄 향기 다 시들었지만,
귀한 님 더 머물러 있으면.
空山新雨後, 天气晚来秋.
明月松间照, 清泉石上流.
竹喧归浣女, 莲动下渔舟.
随意春芳歇, 王孙自可留.

이 시에서 가을 저녁의 경물을 精丽하면서도 순수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왕유 시에 있어서 첩어의 사용은 음조와 시구의 미(美)를 주고 있어서 왕유는 시의 정교함과 우아함이 첩어를 통해 알맞게 표현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달 시의 고아미는 시어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즉 첩어와 重言을 통하여 시의 미감과 飘逸性을 조성하여 시에서의 생동감과 입체감까지 구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왕유 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3.宗敎的인 超脱性

이달의 游仙的인 시는 19수 禪的인 시는 27수에 달하는데 이것은 왕유시의 神韻味와 같은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시의 游仙적인 면에서 보면 长嘯하면서 长生을 추구하고 의식의 높고 오묘함을 터득하는 자연과의 하나 되는 시적 경계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초월적인 시의 뜻에 응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왕유 시에서 대표적인 예는 《王右丞集箋注》 卷13 <竹里馆>을 들 수 있다.

홀로 깊은 대 숲 속에 앉아
거문고 타고 길게 휘파람 부는데,
깊은 숲 아무도 모르거늘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추노라.
独坐幽篁里, 弹琴复长嘯.
深林人不知, 明月来相照.

이 시에서 잘 나타난 것과 같이 한 폭을 초탈적인 흥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달 시에서 <題金醉眠山水障子面>(상동 권1)의 제3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 위에 보라 연기 옷 입고
나부끼는 옛 선인이
구름 속에서 아득한데
하늘의 바람은 그칠 줄 모르네.
鶴上紫烟衣, 飄飄古仙子.
去入云冥冥, 天风吹不已.

이 시는 仙人의 의식에서 자연과 하나의 유토피아를 구하고 있으며 신선의 세계로 몰입하고 있다. 보다 더 강한 仙의 경지를 주제로 한 이달의 <步虛詞> (상동 권2)의 시어에는 물론 시적 느낌까지도 속세로부터 승화된 의식을 보게 된다. 그 제8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삼단에서 한밤에 진경을 말하니
 다 모인 못 선인 아래 뜰에 즐지었고
 오직 노군이 있어 별궁을 지어
 구름에 써서 진경을 보내네.
 三坛中夜讲真经, 大集郡仙列下庭.
 唯有老君修别殿, 手书云兼送玄真.

위의 시는 仙어인 '三坛', '真经', '玄真' 등을 사용하여 시의 초탈적인 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이달의 불교적 禪 시풍은 仙的 요소보다 더 짙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왕유를 두고 볼 때 양인의 불가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경지라 하겠다.²⁶⁾

두시를 살펴본 것처럼 이달의 불교적 禪 시풍은 仙的인 요소보다 더 짙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왕유를 같이 두고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²⁷⁾ 이달과 왕유의 초탈적인 의식의 시를 더 살펴본다. 먼저 왕유 시 <过感化寺昙兴上人山院>(상동 권4)을 보면 佛法의 정신세계를 작시에 이입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저녁에 대나무지팡이를 짚고
 호계 기슭에서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을 배웅하며 산울림소리를 듣고
 개울물 따라 선방으로 돌아온다.
 들꽃은 무리져 활짝 피고
 산새는 그윽히 울어댄다.
 밤에 텅빈 숲에 조용히 앉으니
 술바람이 정말 가을인냥 하네.

暮持筇竹杖, 相待虎溪头.

26) 柳晟俊 『王維詩比較研究』 第5章 참고, (北京 京華出版社 1999)

27) 柳晟俊 『王維詩比較研究』 第5章 참고, (北京 京華出版社 1999)

催客闻山响, 归房逐水流。
野花藜(송)发好, 谷鸟一声幽。
夜坐空林寂, 松风直似秋。

이 시는 외적 형상에 대한 시각적 면을 떠나서 참된 형상(真相)에 대한 관찰로 들어간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 이달의 <题湖寺僧>(상동 권2)을 비교해서 살펴본다.

옛 절 찬 종소리 울리는데 산 경치는 저물고
자규새 우니 한이 끊이지 않네.
남쪽 호수의 마름 풀 벌써 뾰족한데
삼월에 가신 이는 돌아올 건가.
古寺寒钟鸣翠微, 子规啼歇恨依依。
南湖菱角已成刺, 三月行人归未归。

이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묘한 참선의 흥취를 느끼게 하여 '色'에서 '空'을 보이고 '喧'에서 '靜'을 좇는 정감의 흥취를 느끼게 한다.

V. 맺는말

허균은 삼당시인의 주도자인 이달의 제자로서 그의 시화에서 당시를 바탕으로 하는 시론을 전개하여 조선중기 시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 시화에서 조선시단의 장단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시화는 10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심 논리는 조선 시단의 문인에 대한 평가와 그 중에도 삼당시인에 대한 거론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러 면에서 허균의 『惺叟诗话』와 함께 조선후기의 시론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英正祖代에 청대 '四大诗论'이 유입된 근거자료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달은 그의 시풍이 성당시와 접목되어 평가될 때에 진정한 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져 그 비교근거와 함께 왕유시와 관계성을 고찰하게 된 것이다. 이달은 오직 시의 경지에서만 일생을 지낸 조선 시단의 유일하다고 할 순수한 시인이다. 그의 시가 왕유와 상통한 점을 은일낭만적 전원미, 그리고 도교와 불교적인 탈속성 면으로 비교하였다. 이달 시는 어떤 면에서 왕유시와 같지 않은 면도 있는데 이달 시는 묘사의 관점이 직선적인데 반해 왕유시는 간접적이며 수식적인 면이 많고, 이달에게는 벗을 노래한 시가 많은데, 왕유는 그런 시가 부족하다. 왕유는 회화적인 시정이 뛰어나서 시의 미적 감각은 이달이 따르지 못하겠지만 하지만 이달은 시어의 구사와 묘사가 진솔하고 고아한 면에서는 왕유와 견줄 만하다. 본 논고는 『鶴山樵談』에서 조선의 삼당시인이 중국의 당시와 연관되어 있는 자료를 통하여 조선과 명나라의 문학 교류를 살피고 별도로 이달시를 성당의 왕유시와 접목하여 비교한 것은 나름대로의 시도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许筠, 赵鍾业, 『鹤山樵谈』 韩国诗话丛编 1册, 东西文化院, 1989.
- 许筠, 洪万宗编, 『惺叟诗话』, 诗话丛林, 亚细亚文化社, 1973.
- , 『惺叟覆瓿藁』, 韩国文集丛刊74, 民族文化推进会 影印.
- 차용주, 『许筠研究』, 景仁文化社, 1998.
- 허경진, 『许筠诗研究』, 平民社, 1984.
- 허경진, 『许筠의 诗话』, 民音社, 1982.
- 赵鍾业编, 『韩国诗话丛编』, 东西文化院, 1989.
- 박철휘, 『韩国诗史研究』, 一潮阁, 1980.
- 李家源, 『韩国汉文学史』, 보성문화사, 1983.
- 赵鍾业, 『韩国诗话研究』, 太学社, 1991.
- 이중은 等编, 『韩国历代诗话类编』, 亚细亚文化社, 1988.
- 柳晟俊, 『韩国汉诗와 唐诗의 比较』, 푸른사상, 2002.
- 조용희, 『朝鮮中期汉诗批评论』, 韩国文化社, 2003.
- 丁福保, 『清诗话』, 上海古籍出版社, 1978.
- 何文焕, 『历代诗话』, 艺文印书馆, 1971.
- 丁仲祐, 『续历代诗话』, 艺文印书馆, 1974.
- 胡应麟, 『诗薮』, 正生书局, 1973.
- 张 健, 『清代诗学研究』, 北京大学出版社, 1999.
- 柳晟俊, 『清诗话研究』, 国学资料院, 1999.
- 严羽, 郭绍虞, 『沧浪诗话校释』, 人民文学出版社, 1998.
- 台静农, 『百种诗话丛编』, 艺文印书馆, 1974.
- 蔡镇楚, 『诗话学』, 湖南教育出版社, 1990.
- 蔡镇楚, 『中国诗话史』, 湖南文艺出版社, 1988.
- 李曰刚, 『中国诗歌流变史』, 文津出版社, 1987.
- 柳晟俊, 『王维诗比较研究』, 北京京华出版社, 1999.

Abstract

The consideration about Three Tang Poet Theory of HakSanChoDam
and SongTang Poetic style of LeeDal's poem

Kim Won

The HakSanChoDam written by Heo Gyun(허균) is a Poetic theory from Chosun Dynasty in 1593. In those days, the style in Poetical circles inclined toward the traditional customs following the Song Poetical style of SoSik(소식) and HwangJungGyun(황정건)

However, with the influence of Ming's civilization, this style of poetry changed into a new trend that follows Tang's Poem but excludes Song's

The leaders of this poetic style, called "Three Tang Poets", are LeeDal, (이달)ChoiKyungChang(최경창), and Baekgwanghun. (백광훈)

In this way, <HaksanChoDam> was a poetic theory treating the style of the middle of the Choson Dynasty.

Key Words : Hak san cho Dam(鶴山樵談), Three Tang Poet's(三唐詩人), Lee Dal(李達)